

순접 조건표현에 관한 일고찰

- 중세 구두어 자료를 중심으로 -

안지영*

mimizu@korea.ac.kr

차례

1. 들어가며
2. 조사 자료 및 연구 방법
3. 구두어 자료에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의 양상 및 특징
4. 나오며

요지

本稿は、江戸初期に大蔵流の狂言師である大蔵虎明によって書かれた『大蔵虎明本狂言集』と同時代に書かれた『天草版平家物語』及び『御伽草子』などの中世口頭語資料を中心にして、そこに現れた順接条件表現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

その結果、『大蔵虎明本狂言集』における順接条件表現の場合、その台本の時期的な性格上、それぞれ近代語に分化、発展していく過渡期的な諸様相が現れていた。特に、恒常条件の場合、そのような傾向が目立ち、古代語から近代語へ移行していく過渡期的な性格が強く現れていると言える。一方、『天草版平家物語』における順接条件表現の場合、『大蔵虎明本狂言集』と同時代の資料という点ではほぼ同じく過渡期的な性格が現れていたが、恒常条件に関しては『大蔵虎明本狂言集』の結果とは全く違って、その出現率があまり高くなかった。最後に、『御伽草子』における順接条件表現の場合には、結果は以上の二つの資料とほぼ同じであったが、特に確定条件表現が高い頻度で現れ、徐々に文章を論理的に表現するようになった様相を呈していると思われる。

以上の結果を基に、このような傾向がこの資料だけの特徴であるかどうか、またこのような結果が出た原因はなぜかということをさらに客観的に分析するために、これから様々な資料の検討を通して条件表現の全体的な研究をしたいと思う。

키워드 : 순접 조건표현, 구두어자료, 『오쿠라도라이키라본교젠슈』, 『아마쿠사반헤이케 모노가타리』, 『오토기조시』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1. 들어가며

본 논문은 중세 구두어 자료 속에 나타나 있는 순접 조건표현에 관한 일고찰이다. 본고의 목적은 구두어 자료에 나타나 있는 순접 조건표현의 사용실태를 분석·고찰하여 구두어 자료속의 순접 조건표현의 특징을 밝히는데 있다.

고바야시 겐지(小林賢次, 1996)에 의하면, 조건 표현이란 접속 표현 중 「テ」「ッ」 등에 의한 사태(事態)의 단순한 시간적 연속 혹은 병행적인 표현으로 파악되는 것을 제외하고, 전건(前件)과 후건(後件)이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접속되는 표현을 가리킨다. 이러한 조건 표현은 순접 조건표현과 역접 조건표현으로 나뉘는데, 그 중 순접 조건표현은 고대어에서 근대어로의 변화 속에서 그 체계에 극히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 변화는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가정의 접속조사 「バ」가 고대어에서는 동사의 미연형(未然形)에 접속하던 것이 근대에 이르러서는 동사의 이연형(已然形)에 접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	<근대>
가정조건 咲かば (未然形+バ)		가정조건 咲けば (已然形+バ)

다시 말해서, 「꽃이 피면」이라는 순접 가정조건인 경우 고대어에서 「未然形+バ」의 형식으로 「花咲かば」로 표현되고 있던 반면, 근대어에서는 그 형식이 소멸하게 된다. 대신 원래 확정조건 형식인 「已然形+バ」의 형식으로 「花咲けば」와 같이 가정조건을 표현하기에 이르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문어문법에서 「이연형(已然形)」으로 불리고 있던 그와 동일한 형태가 구어문법에서는 「가정형(假定形)」으로 활용형의 명칭이 변화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무로마치(室町)시대부터 에도(江戸)시대에 걸쳐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이 시기는 일본어의 역사상 고대어에서 근대어로 이행되어 가는 시기로, 당시의 자료 검토는 근대어로의 변화 모습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구두어 자료를 선정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고대 일본의 언어사회에서는 언문일치의 경향이 강하였으나 헤이안(平安)시대가 되면서 구어와 문어의 괴리가 생

기기 시작한다. 특히, 중세가 되면 언문불일치, 즉 구두어와 문어의 괴리가 커지게 된다. 그러나 점차 문호가 개방되게 되면서 외국 언어 사정을 알게 되고 사람들은 그 부자연스러움을 깨닫게 되어 말과 글을 일치시키려 하게 되어 고대에서 근대에 걸쳐 구두어가 급속히 변화하게 되고 새로운 구어가 성립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에 비해 문어의 경우 교육 분야와 같이 전통성이 강한 분야에 기반을 두어 오히려 보수적인 면이 강했다. 또한 거기에 사용되는 문법의 경우 새로운 변화에 의해 요소가 개선되는 일이 적었으며, 그 변화 속도도 서서히 진행되어 전통적인 학문이나 문학 세계에서는 종래의 문어가 그대로 유지되어 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어자료에 기록된 문법적 사항들은 규범성이 강하여 정형화된 틀 속의 조건표현으로만 나타난다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형화된 틀 속의 조건표현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의 사용되는 구두어 속의 조건표현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구두어는 문어 자료와는 달리 그 변화 양상이 빠르게 나타나므로, 문헌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실 또한 발견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세의 대표적인 구두어 자료에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조사 자료 및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의 주된 고찰 대상은 중세 후반부터 근세 초기에 서사된 『오쿠라도라 아키라본 교겐슈(大藏虎明本狂言集)¹⁾』와 『아마쿠사반 헤이케모노가타리(天草版平家物語)²⁾』 그리고 『오토기조시(御伽草子)³⁾』이다. 이상의 자료는 당시의 구두어가

1) 『오쿠라도라아키라본 교겐슈(大藏虎明本狂言集), 虎明狂言이라 약칭한다』는 에도(江戸)시대 초기(1642) 오쿠라류(大藏流)의 교겐시(狂言師) 오쿠라도라아키라(大藏虎明)에 의해 서사된 교겐 대본이다.

2) 『아마쿠사반 헤이케모노가타리(天草版平家物語), 이하 天草平家라 약칭한다』는 1592년 당시 크리스티교 포교를 위해 일본에 온 예수회 외국인선교사들의 일본어 습득을 목적으로 아마쿠사가쿠린(天草学林)에서 출판된 구두어 자료이다.

3) 『오토기조시(御伽草子), 이하 御伽라 약칭한다』는 넓게는 무로마치시대부터 에도 초기에 걸쳐 만들어진 이야기를 가리키며, 좁게는 에도시대에 들어와 널리 읽혀진 23편의 단편 구두어 자료를 지칭한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23편에 한정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반영된 문헌자료로, 구두어 속의 조건표현의 양상을 파악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구두어 자료에 나타난 조건표현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수 있으나, 용례의 언급 내지는 약간의 기술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구두어 자료 속의 전체적인 접속표현의 경향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와 그에 관한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虎明本와 天草平家, 御伽에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료 분류에 있어서는 고바야시(1996)의 분류체계에 입각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이하, 본고에서 분류 대상이 되는 고바야시의 분류체계를 예문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조건(假定条件) - 완료 - 花咲かば見む。

비완료 - 君行かば我も共に行かむ。

항상조건(恒常条件) - 酒を飲めば酔ふ。

확정조건(確定条件) - 필연조건(必然条件) - 今日は雨降れば客無し。

우연조건(偶然条件) - 願みすれば月傾きぬ。

이상의 분류 기준을 통해 虎明狂言과 天草平家に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의 용례문을 추출한 후, 두 구두어 자료에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의 특징에 관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3. 구두어 자료에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의 양상 및 특징

虎明狂言과 天草平家 그리고 御伽에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을 분류해 본 결과, 순접조건을 나타내는 조건표현은 각각 총 1,773용례, 883용례, 1252용례이다. 구체적으로 각 자료에 나타난 전체 용례를 살펴보면, 虎明狂言의 경우, 가정 조건표현이 634용례로 35.7%이며, 확정 조건표현은 430용례로 24.2%이고, 항상 조건표현은 709용례로 40.1%로, 전체적으로 항상 조건표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天草平家の 경우, 가정 조건표현이 148용례로 16.8%이며, 확정 조건표현은 699용례로 79.1%이고, 항상 조건표현은 36용례로 4.1%로, 확정 조건표현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御伽의 경우, 가정 조건표현이 167용례로 13.3%이며, 확정 조건표현은 618용례로 49.4%이고, 항상 조건표현은 467용례로 37.3%로, 天草平家와 마찬가지로 확정 조건표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이에 근거하여 각 표현 형식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표1> 순접 조건표현의 양상

자료 \ 조건표현	가정조건		확정조건		항상조건	합계
	비완료	완료	필연	우연		
虎明狂言	417 (23.5)	217 (12.2)	300 (16.9)	130 (7.3)	709 (40.1)	1,773 (100.0)
天草平家	128 (14.5)	20 (2.3)	304 (34.4)	395 (44.7)	36 (4.1)	883 (100.0)
御伽	150 (12.0)	17 (1.3)	527 (42.1)	91 (7.3)	467 (37.3)	1,252 (100.0)

숫자는 용례수를, () 안은 %를 나타낸다.

3.1 가정 조건표현

3.1.1 虎明狂言의 경우

虎明狂言에 나타난 가정 조건표현은 총 634용례이다. 가정 조건표현은 크게 비완료와 완료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비완료 가정 조건표현이 417용례이고 완료 가정 조건표현이 217용례로, 비완료 가정이 약 1.9배가량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비완료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동사의 未然形+バ」로, 세부 분류 하면 「四段動詞의 未然形+バ」와 「ゴザル」에 접속된 형태인 「ゴザラバ」 등이 나타난다. 그 외 소수의 용례가 나타난 것으로는 下二段에 접속된 것, サ変에 접속된 것, 「オジャラバ」, 부정 조동사인 「ズ」에 접속된 형태가 나타난다. 이하, 주요 용례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教え手)なふ¹ あらはやらふとおも(思)ふて、たつねたれは、よそへか(借)つて

いてな(無)ひといふは

(ひつき聳, 341:5)

(2) (つんぼ)\目にみ(見)えた事がござらは、某にまか(任)させられひ

(きかず座頭, 428:8)

(3) 太郎冠者)\とおい(遠)への(乘)つておじやは、ゑあり(歩)くまひ時は、むちで
打たゝきやらうほどに

(人馬, 224:1)

(이하, 예문의 하선은 필자에 의함)

또한 단정의 조동사 「ナリ」+「バ」의 형태인 비완료의 가정조건의 표현 형식인 「ナラバ」가 있는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체언과 접속한 형태로, 특히 명사와 결합한 것이 총 82용례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체언과 결합한 형태 중 형식 명사인 「モノ」, 「コト」, 「ホド」가 「ナラバ」에 접속된 「モノナラバ」, 「コトナラバ」, 「ホドナラバ」의 형식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ナラバ」의 경우, 접속사적 성격을 띠는 용법이 다수 나타나는데, 이것은 「ナラバ」가 점차적으로 접속사적 성격이 강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한 예라 생각된다. 해당 용례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薑売)\そちがしやうばい(商売)人ならば、身どもはあきんど(商人)じや

(酔はじかみ, 75:14)

(5) (主)\これほどならば、人やと(雇)ひしてなりとも、道具をもたせてこうものを

(どんごむさう, 76:6)

다음으로 단정의 조동사 「タリ」+「バ」의 형태인 완료를 나타내는 가정 조건표현인 「タラバ」의 용례는 「ナラバ」에 비해 1.2%정도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이 경우, 이전까지 완료를 나타내던 조동사 「ツ, ヌ, タリ, リ」 등의 완료 조동사들과 접속된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이상의 조동사들이 모두 「タリ」로 통합되어 나타나는 사적 변천의 양상이 虎明狂言의 용례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된다. 완료를 나타내는 가정조건의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伯母)\今からまいつたらば、さけ(酒)はのませませう程に、こら(榎)へてくだ

され

(おはか酒, 279:2)

3.1.2 天草平家の 경우

天草平家の 가정 조건표현은 총 148용례이다. 虎明狂言와 마찬가지로 비완료를 나타내는 가정 조건표현인 「動詞의 未然形+バ」가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며, 그 외 조동사에 접속된 용례도 나타나는데 모두 「レバ」「ラレバ」의 형태로 모두 존경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수의 용례로 「ゴザラバ」, 「下二段」과 「ナ變」 접속도 있다. 해당 용례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7) 日ゴロは何ゴトモゴザラバ、真先ヲカケテ討死ヲイタサウト存ジタニ、今度ハ何ト思ワレテゴザルか。 (卷二, 二:118)
- (8) タトイ舞ヲゴ覽ジ、ウタイヲ聞キ召サレズトモ、御対面バカリアッテ帰サセラレバ、有難イヲ情ケテゴザラウズ (卷二, 一:95)

다음으로 단정의 조동사 「ナリ」+「バ」의 형태인 「ナ라바」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조동사와의 접속의 경우 「ルルナ라바」「마라슬나라바」 외에 부정추량의 조동사 「마이」와 추량의 조동사 「우」에 접속된 형태가 소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조사와 접속된 경우도 나타나는데, 특히 문상당어구(文相当語句)에 해당하는 「ゾ나라바」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단정의 조동사 「타리」+「바」의 형태인 완료를 나타내는 가정 조건표현인 「타라바」의 경우, 총 20용례로 가정 조건표현의 2.3%로 나타나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하 해당 용례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9) ソレニモ御心ノユカザラウ時コソ、御様ヲモ變エサセラレテ、ノチノ世ヲモトムライ參ラセラルルナ라바、ヨウゴザラウ。 (卷四, 十:282)
- (10) コレヲ召シ具シテ院ノ御所ヲ守護シ參ラスルゾ나라바、サ스가モッテノホカノ御大事デゴザラウズ。 (卷一, 六:47)

3.1.3 御伽의 경우

御伽에 나타난 가정 조건표현은 총 167용례이다. 비완료 가정 조건표현이 150용례이고 완료 가정 조건표현이 17용례로, 天草平家와 마찬가지로 비완료 조건 표현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비완료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동사의 未然形+バ」로 특히 용례문(11)과 같이 라變動詞인 「アリ」의 未然形에 접속된 「アラバ」가 가장 많이 나타나 있다. 해당 용례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もし文重なる方もあらば、逢はでむなしく消ゆるとも、君故ならば、なかなか
に怨みとさらに思ふまじ (蜂かづき, 68:3)

(12) その義にて候はば、とりてみる (ものくさ太郎, 193:15)

다음으로 단정의 조동사 「ナリ」+「バ」의 형태인 「ナラバ」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 보면, 虎明狂言과 마찬가지로 체언과 결합한 형태 중 형식 명사인 「モノ」, 「コト」, 「ホド」가 「ナラバ」에 접속된 「モノナラバ」, 「コトナラバ」, 「ホドナラバ」의 형식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해당 용례문은 다음과 같다.

(13) さし損ずるものならば、笑はれ候はんことの口惜しかるべしと思ひ乱れ、かれ
これ見まはしける中に、 (猿源氏草子, 178:10)

단정의 조동사 「タリ」+「バ」의 형태인 완료를 나타내는 가정 조건표현인 「タラバ」의 경우, 총 3용례뿐이었다. 이하 해당 용례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4) 清水にての男じゃ、いかか。これほど暗きに、それに行きあひたらば、命もあ
らじ (ものくさ太郎, 199:10)

3.2 확정 조건표현

3.2.1 虎明狂言의 경우

확정 조건표현은 크게 필연 확정조건, 우연 확정조건으로 나뉜다. 虎明狂言에 나타난 확정 조건표현은 총 430용례로, 총 순접 조건 표현 중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나 있었다.

우선, 조건구가 원인·이유를 나타내고 전건과 후건이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필연 확정 조건표현은 전건과 후건이 다른 조건표현에 비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총 300용례로 확정 조건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우연 확정 조건에 비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연 확정 조건표현은 전건과 후건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필연성의 정도가 높지 않으며, 총 130용례로 확정 조건표현 전체의 30%정도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이하 해당 예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15) (主)\見れは村鳥があらすと見えた (なるこ, 133:12)

(16) (男)\人かと思ふたれは人形をつくつておいて、よひきも(肝)をつぶ(潰)ひた (うり盗人, 40:2)

3.2.2 天草平家の 경우

전체 순접 조건표현 중 확정 조건표현이 天草平家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699용례(79.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필연 확정조건이 304용례, 우연 확정 조건이 395용례이다. 특히 용례문(17)과 같은 「タレバ」가 절대적으로 많은 빈도를 보였다. 필연 확정조건의 대표적인 용법과 우연 확정조건의 대표적인 용례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7) 備前ノ国ノ三石ノ宿ニ泊マツタレバ、兼康ガ親シイ者ドモ酒ヲ持タセテ来テ
ソノ夜夜モスガラ酒盛リヲシテ、 (卷三, 十二:211)

(18) 六条河原テ命ヲ惜シマズ、振舞ウタソノ奉公ヲ思エバ、ワ殿マデモオロドカ
ニ思ハヌ (卷四, 二:230)

3.2.3 御伽의 경우

御伽의 전체 순접 조건표현 중 확정 조건표현은 618용례(49.4%)로 전체의 절반가량의 비율로 나타날 만큼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필연 확정조건이 527용례, 우연 확정 조건이 91용례이다. 특히 확정 조건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전건과 후건을 인과관계로 연결하여 이야기를 진행해 가는 御伽의 문학적 성격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문장 연결에 있어 점차적으로 논리적으로 변해 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해당 용례문은 다음과 같다.

- (19) みれは、敦盛に少しも違ひ給はぬ男子なれば、いづくにも隠し置き、かたみに見ばやと思へども (少敦盛, 234:1)
- (20) みれば目もくれ、心も消え入るばかりなる。 (横笛草紙, 355:14)

3.3 항상 조건표현

3.3.1 虎明狂言의 경우

虎明狂言의 항상 조건표현은 총 709용례로 전체 순접 조건표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용례문은 다음과 같다.

- (21) (教え手)\そのやうにさへすれは、むこ殿はしつけ人じやといふてほ(賞)めうほどに、そのやうにあそばせ (音曲聳, 338:1)
- (22) (太郎冠者)\中々命さへあれは又めぐりあふ事もあらふが、ひごろひとつにみて、今わかるゝに依て、一しほ(入)なごりおしひ (武悪, 310:8)

항상 조건표현의 경우 대부분이 용례문(21)과 같이 후건이 단정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ホドニ」나 「ニヨッテ」와 호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용례문 (22)와 같이 추량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용례문(22)와 같이 추량 표현을 동반한 항상 조건표현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어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정 조건표현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과도기에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3.3.2 天草平家の 경우

天草平家に 나타난 항상 조건의 용례문은 총 36용례이다. 항상 조건표현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더욱이 추출된 용례들 중에도 확정 조건표현과의 경계 상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항상 조건표현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나타난다. 대표적인 항상 조건표현의 용례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3) 思ワシイモノヲ見ウトスレバ、父ノ命ヲソムクニ似、父ノ命ヲソムクマジイト

スレバ、深ウ契ッタ女ノ心ヲ破ラウズ。 (卷四, 13:307)

(24) モシ頼政チャワ、光基ナドト申ス源氏ドモニアザムカレタレバコソマコトニー
門ノ羞恥デモゴザラウズレ。 (卷一, 2:16)

용례문 (23)의 경우 후건이 추량표현으로 나타나는 용례로, 전술한 虎明狂言의 용례문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항상 조건표현이 가정 조건표현으로 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이 天草平家에서는 극히 소수의 용례만을 보이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미분화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용례문 (24)와 같이 「モシ」를 동반하여 항상 조건을 표현하는 용례문들도 보인다.

3.3.3 御伽의 경우

御伽에 나타난 항상 조건표현은 467용례이다. 虎明狂言의 항상 조건표현과 같이 두드러진 빈도수를 보이지 않으며, 御伽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그다지 높지 않으나, 天草平家에서와 같이 애매한 용례문들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그 형식상에 있어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이하 해당 용례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5) その故を尋ぬれば、中国十六都の内、鹿島の大明神とて、 (文正草子, 29:5)

(26) わらさへみれば、あまりのうつくしさに、たちどもさらにおほえず、
(さいき, 334:12)

4. 나오며

지금까지 虎明狂言과 天草平家, 그리고 御伽에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虎明狂言의 가정 조건표현의 경우 특히 비완료 표현이 많이 나타나 있다. 비완료의 경우 「動詞의 未然形+バ」와 「ナラバ」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예가 많았으며, 완료는 「タラバ」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비완료 용법이 많은 것은 전건과 후건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 가능하게 하는 단정의 조동사 「ナリ」에 조사 「バ」가 접속된 표현이 증가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항상 조건표현의 경우, 다른 조건표현보다 특히 두드러진 빈도수를 보인다. 추출된 예문들은 대부분 후건이 단정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추량표현을 취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항상 조건표현이 추량의 표현을 동반하면서 가정조건표현으로 변해가는 과도기적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天草平家の 가정조건의 경우, 가정조건표현의 형식인 「未然形+バ」, 「ナラバ」, 「タラバ」에서도 과도기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과도기적 양상이란, 이전 「未然形+バ」로 대부분의 가정조건이 표현되었던 것에 반해 가정조건의 형식이 점차 세분화 되어 「ナラバ」, 「タラ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용빈도수가 양쪽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ナラバ」, 「タラバ」의 형식이 세분화 되어 정착된 것이 아니라 점차 분화,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虎明狂言의 결과와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未然形+バ」형식이 쇠퇴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タラバ」의 용례가 다른 용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天草平家が 문어자료인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를 구두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되지만, 그 구체적인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제 저본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항상 조건표현의 경우, 虎明狂言에 비해 天草平家에서는 항상 조건표현의 용례가 극히 소수로 나타나 있었으며 또한 아직까지 그 표현 형식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셋째, 御伽의 가정 조건표현의 경우 그 쇠퇴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그리고 御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확정 조건표현의 두드러진 발달이다. 이것은 전건과 후건을 인과관계로 연결하여 이야기를 진행해 가는 御伽의 문학적 성격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점차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항상 조건표현의 경우 虎明狂言보다는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용례 문에 있어서는 天草平家の 항상 조건표현보다는 안정적인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 중세 구두어 자료 속에 나타난 조건 표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나타난 구두어 자료 속의 순접 조건표현의 결과를 가지고 다른 구두어 자료 속에서도 이러한 양상들이 보이는지, 그렇다면 이렇게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후에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욱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구두어 자료를 분석하여 조건표현 전체에 관하여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池田広司・北原保雄(1972-1983), 『大蔵虎明本狂言集の研究 本文 上・中・下』, 表現社.
- 市古貞次(1958), 『御伽草子』, 岩波書店.
- 江口正弘(1986), 『天草版平家物語対照本文及び索引 本文編』, 明治書院.
- _____ (1994), 『天草版平家物語の語彙と語法』, 笠間書院.
- 大島建彦(1974), 『御伽草子集』, 小学館.
- 小林賢次(1985), 「中世語資料としての狂言台本」, 『日本語学』31号, 明治書院.
- _____ (1996), 『日本語条件表現史の研究』, ひつじ書房.
- _____ 外編(1997), 『日本語学キーワード事典』, 朝倉書店.
- _____ (2000), 『狂言台本を主資料とする中世語彙法の研究』, 勉誠出版.
- 阪倉篤義(1958), 「条件表現の変遷」, 『国語学』33輯, 国語学会.
- 佐藤喜代治編(1983), 『国語学研究事典』, 明治書院.
- 日本古典文学大辞典編集委員会編(1986), 『日本古典文学大辞典』, 岩波書店.
- 蜂谷清人(1977), 『狂言台本の国語学的研究』, 笠間書院.
- _____ (1991), 「狂言の日本語」, 『日本語学』110号, 明治書院.
- 益岡隆志(1995), 『日本語の条件表現』, くろしお出版.